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 11. 3.(화) [배포 시점]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위협대응정책팀 김은성 팀장(전화: 02-405-4710, 전자우편: eun-sung@kisa.or.kr) 위협대응정책팀 백은주 수석(전화: 02-405-4716, 전자우편: beunju@kisa.or.kr)	
참고자료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총 2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 침해사고대응팀(KrCERT/CC) 설립 30주년…국제 사이버보안 전문가 부산에 모인다

-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

[관련 국정과제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나흘간 부산 롯데 호텔에서 「2026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 연례총회 및 국체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026. 11. 3.(화)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디지털침해대응본부인 한국 침해사고대응팀(KrCERT/CC)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는 아태지역 20개국 침해사고대응팀(CERT)과 국내외 기업의 침해사고대응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행사 주제는 「끊어지지 않는 사슬: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글로벌 회복력(The Unbreakable Chain: Global Resilience for a Trustworthy Future)」이다. 사이버 위협이 국가와 조직의 경계를 넘어

확산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위협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 연례총회 및 연례 학술회의(콘퍼런스)(3~4일) ▲침해사고 대응 공동 훈련(4일)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의 아태지역 심포지엄(5일)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 보안 실무 교육(6일) 순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이 사이버 공격과 방어 전반에 활용되면서 침해사고 대응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에 따른 국가별 침해사고대응팀 간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행사의 두 차례 기조연설은 인공지능과 협력을 화두로 삼는다. 4일 연례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김명주 소장이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와 인공지능 보안」을 주제로, 5일 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가 「국가의 사이버 회복력(Resilience)」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다.

또한, 5일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디지털 침해사고 대응 지원 등을 수행하며 쌓아온 민관 협력 경험과 대응 체계를 공유한다. 특히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의 침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인한 국가 단위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의 실효성과 한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용규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한국 침해사고대응팀(KrCERT/CC)의 지난 30년은 침해사고에 맞서고,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대응 역량을 쌓아온 시간이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부산 회의가 아태지역을 잇는 사슬을 한층 단단히 해, 위협 정보를 더 빠르게 나누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2026 APCERT AGM & Conference 안내문

